한국 양계산업의 살아 남는 길(2)

순 서
Ⅰ. 머리말
Ⅱ. 개방경제와 한국농업의 진로
Ⅲ. 양계산업의 규모경제

박 진 환
농협대학 명예교수

Ⅲ. 양계산업의 규모경제

개방경제하에서도 사료용 곡류는 지가가 싼 농산물 수출국들로부터 수입될 것이다. 수입사료에 의해 양계나 양돈을 하는 데는 많은 면적의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출이 기대되는 품목이기도 하다. 그 대신 이들 부문에 있어서는 양축농가 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계, 양돈, 낙농, 한우 등 4개 축산부문 중에서도 대경영의 유리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양계부문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양계에 있어서는 사료투입과 계란생산과의 생산함수가 직선에 가까워 수확체감의 현상이 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실험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의 양계산업은 지난날의 부업양계가 사라진 대신 양계전업농가들이 늘어났으며 양계농가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대규모 사육농가들에 의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표3은 일본에 있어서 산란계 사육농가수의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1983~1989년 사이에 1,000수에서 5,000수의 사육규모 농가들의 수가 8,400호에서 4,300호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되었다. 다음에는 5,000수에서 10,000수의 사육규모에 있어서는 농가수가 3,200호에서 2,300호로 약 30%가 감소되었다. 한편 10,000수에서 50,000수 규모에 있어서는 사

표3. 일본의 산란계 사육농가수의 동향(1,000수 이상 사육농가)

단위 : 천호

년 도	사육규모(마리수)			
	1,000~5,000	5,000~10,000	10,000~50,000	50,000 이 상
1983	8.4	3.2	2.6	0.4
1984	7.6	3.1	2.7	0.4
1985	6.9	3.0	2.6	0.4
1986	6.2	2.9	2.7	0.4
1987	5.7	2.6	2.8	0.5
1988	5.1	2.4	2.8	0.5
1989	4.3	2.3	2.8	0.5

자료 : 일본농업연감, 1991, P.494

육농가수가 2,600호에서 2,800호로 8% 정도가 늘어났다. 그리고 50,000수 이상 규모의 농가수는 400호에서 500호로 25%가 늘어났다.

표3의 일본의 산란계 사육규모별 농가수의 분포를 통하여 우리는 두가지 점에 주목하게 된다. 그 하나는 5,000수 미만의 사육농가들 중에 산란계 사육을 그만 둔 농가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에 있어서는 10,000수 이상이 되어야만 경쟁속에서 이겨내는 적정규모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림3은 산란계의 사육에 있어서 사료투입과 계란생산과의 생산함수가 직선에 가까워 수확체감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미국에서의 실험결과이다.

그림에 있어서 X측은 암탉의 마리당 사료투입을 나타내고 Y축은 마리당 계란생산을 나타낸다. 두가지 직선중 A는 체중이 가벼운 암탉종류의 경우이고, B는 체중이 무거운 암탉종류의 경우이다.

마리당 사료투입이 50파운드(25kg)에서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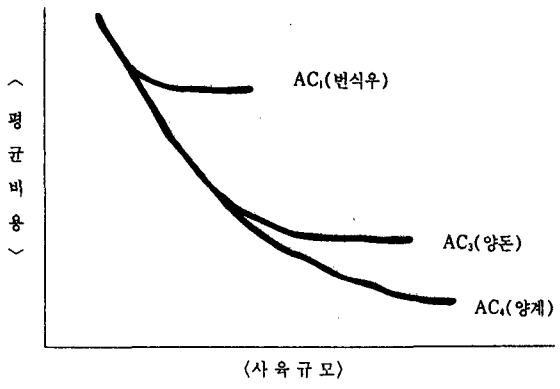


그림 4. 한국 축산업에 있어서 가축종류별 사육규모와 평균비용과의 가상적인 관계

파운드(45kg)까지 늘어나는 과정에서 계란생산도 사료투입에 비례해서 늘어났다. 이것은 사료효율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란생산에 있어서는 사료투입과 계란생산 사이의 생산함수가 이같이 직선과계가 있기 때문에 양계농가에서는 일찍부터 자동급이기를 설치함으로써 암탉이 마음대로 모이를 먹게 해도 사료의 낭비가 적은 대신 노동이 크게 절감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료투입과 계란생산과의 생산함수가 직선적일 때는 예컨대 계란 1개를 생산함으로써 1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계란 10,000개를 생산하면 10,000원의 소득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대체로 계란생산에 있어서는 계란생산비의 대부분이 사료비가 차지하게 되므로 소득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소득율이 낮기 때문에 소정의 소득을 얻으려면 다수사육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사육의 유리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양계산업은 빠른 속도로 대규모화되고 있는 것이다.

양돈의 경우도 대경영의 유리성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양계의 경우처럼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양돈에 종사하는 농가수가 양계농가의 수보다 훨씬 많다. 양돈사육에 있어서는 사료의 투입과 돼지의 체중 증가와의 관계가 계란생산의 경우처럼 직선적이라기 보다는 수확체감의 현상이 나타나는 곡선형이라는 것이 많은 실험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돈산업에 있어서는 사육두수가 많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고 시장경쟁력이 높다고만 말할 수 없다.

닭이나 돼지와는 달리 한우와 젖소를 사육하는데는 많은 양의 조사료 투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한국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조사료값이 비싼 편이다. 조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소의 다두사육이 제약받고 있다.

젖소사육에 있어서는 특히 주인의 직접적인 보살핌이 중요한 부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가축은 주인의 발자욱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는 속담이 적용되는 것이 특히 젖소라고 할 수 있다. 낙농경영에 있어서는 비교적 적은 마리수의 젖소를 사육함으로써 대규모 사육농가처럼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번식을 목적으로 한우를 사육할 때는 조사료를 구입하면 채산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한우번식은 일반농가들이 부업축산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송아지를 구입하여 소의 비육을 하는 데는 다두사육의 유리성이 있지만 송아지의 공급부족과 송아지값의 불안으로 다두사육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커진다.

이상과 같이 한국 축산업에 있어서 대규모 경영의 유리성은 가축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의 유리성이 가장 뚜렷한 것은 양계부문이고 그 다음이 양돈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대경영의 유리성이 가장 제약되는 것은 한우번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경영의 유리성이 가축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그림4에서 볼 수 있다.

그림에 있어서 X축은 가축의 사육규모를 나타내며 Y축은 생산된 생산물의 단위당 평균비용을 나타낸다. AC_4는 양계부문의 평균 비용곡선을 나타내며 사육규모가 커질수록 계란이나 닭고기의 생산단가가 낮아진다는 것을 가상적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AC_3은 양돈부문의 가상적인 평균비용곡선을 나타낸다. 사육두수가 늘어날수록 돼지고기 단위당 비용이 낮아진다. 그러나 양계에 비하면 대규모사육의 유리성이 덜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4에서 있어서 대규모 사육의 유리성이 아주 적은 것은 한우의 번식으로서 AC_1이 그것이다. 한우의 수가 적을 때는 볏짚, 산야초, 농작물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이 되지만 사육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사료의 구입비용이 높아지고 농후사료의 투입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쇠고기의 생산비가 높아진다. 쇠고기값이 하락하는 경우 농가부업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보다도 한우를 다두사육하는 농가들의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4의 양계부문 비용곡선은 국내 양계시장이 개방되는 날에는 한국보다도 양계산업이 앞선 나라들로부터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다. 양계산업이 한국보다 앞서 있는 나라에서는 계란과 닭고기의 단위성 생산비가 한국의 그것보다 낮기 때문에 가격경쟁에 있어서 그들이 유리하게 된다. 이것을 가상적인 비용곡선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5이다.

그림5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다음 두가지 점이다. 그 하나는 동일한 사육규모일 때도 미국의 양계농가들의 단위당 비용이 한국의 양계농가들의 그것보다 낮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육규모가 OA일 때의 산란계의 마리수가 10,000수라고 할 때 한국의 비용곡선은 미국의 그것보다 높은 곳에 있다. 다른 또 하나는 미국의 양계산업에 있어서는 양계농가들이 사육규모를 OA점을 넘어 더욱 확대대함으로써 생산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양계산업의 제반여건들이 아직도 발달되고 있지 못한 탓으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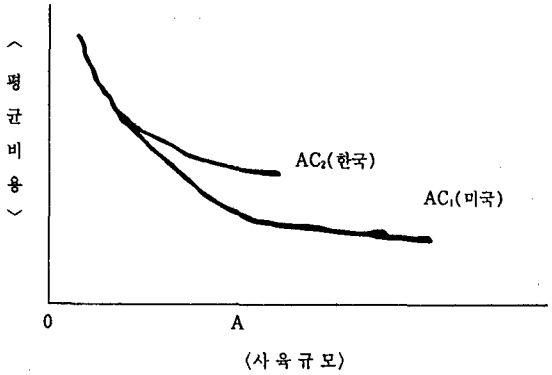


그림5. 양계산업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가상적인 비용곡선 비교

별농가들이 사육규모를 OA점을 넘어 크게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두나라 사이의 비용곡선이 그림5와 같을 경우, 한국의 양계시장이 개방되면 한국의 양계농가들은 선진화된 양계농가들과 가격경쟁에서 지는 쪽이 되고 그동안에 성장해 온 양계산업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한국의 양계시장은 1992년 중반기 이후의 침체된 시장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닭고기의 경우 kg당 생산원가가 950원인 것이 600원에 출하되고 있으며 특란의 경우는 개당 생산원가가 60원인 것이 45원에 출하됨으로써 적자경영을 하는 양계농가 중에는 도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양계시장이 외부와의 문호를 닫아왔던 과거에는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의 적자는 경기가 호황이 되었을 때 거두어들일 수 있었지만 국내 양계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하면 외국에서 생산된 닭고기와 계란이 보다 값싸게 들어올 것이므로 닭고기와 계란값이 다시 오를 것을 기대하기가 점점 어렵게 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호황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값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생산을 해 낼 수 있는 자구책을 빨리 강구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본다(오봉국;"수입개방에 대한 양계산업의 대응방안";축산진흥, 1993, 5.).

육계의 kg당 출하가격이 생산원가의 65% 밖에 되지 않고, 계란의 개당 출하가격이 생산원가의 75%밖에 안된다고 할 때 출하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생산비를 20%에서 30%정도 절감할 수 있는 양계경영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쌀이나 쇠고기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에 비하면 양계산업의 생산비 절감은 가능한 과제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그만큼 양계산업에 있어서는 비용절감의 기술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로써 미국의 육계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Tyson Co.의 보고에 의하면 1952년에는 체중이 3파운드(1.4kg) 나가는 육계를 사육하는데 15주간의 시일과 15파운드(6.8kg)의 사료를 투입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체중이 4파운드(1.8kg)이상 나가는 육계를 사육하는데 8주간도 안되는 시일과 8파운드(3.6kg) 미만의 사료를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M. Schwartz;Tyson, from Farm to Market, Univ. of Arkansas Press, 1991, P.68). 이것은 곧 지난 40여년 동안에 규격화된 육계 한마리를 사육하는 기간이 1/2로 단축되었고 사료의 투입량도 1/2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종계가 개량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양계산업은 종계의 개량에서부터 닭고기와 계란이 최종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 여러단계의 관련산업들과 관련되고 있다. 따라서 최종소비자들에게 보다 질이 좋고 값이 싼 닭

고기와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련산업의 생산성이 다같이 높아져야만 한다. 생산과정의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유통과정의 근대화가 이룩되지 않을 때는 한국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뒤지게 된다. 양계산업의 관련업체들의 생산성이 다함께 빠른 시일안에 높아지기 위해서 개별농가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시장에 이르기까지 조직화되고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미국 양계산업의 수직적 계열화를 참고해 보기로 한다.

계열화된 육계생산(미국)

필자는 1992년에 2월에 미국의 아칸소주의 벼농사를 현지답사하면서 이곳 주립농과대학이 있는 피아트빌레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곳에서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 경영하는 육계농장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이곳에 와서 필자가 알게 된 것은 피아트빌레시는 미국의 육계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타이슨회사(Tyson Co.)의 본고장이라는 것이었다.

한국인 부부는 타이슨회사로부터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받아 타이슨회사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과학적인 사양관리를 책임짐으로써 육계 마리당 정해진 금액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인 부부가 경영하고 있는 농장은 주위가 조용한 구릉지의 잡목들만 자라고 있는 지역에 있었으며 3동의 양계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양계사 한동의 크기는 폭이 13㎝정도에 길이가 130m가까이 되는 길다란 모양이었으며 이 한동에 약 20,000수의 어린 닭들이 사육되고 있었다.

양계사 내부에는 벽에 달린 선풍기와 가스버너의 자동조절장치, 플라스틱 커텐의 자동조절장치, 수많은 자동급이기에 사료가 고루 공급되게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자동장치, 새벽 해뜨기 전 한시간과 저녁 해진 후 한시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전등불을 켜주는 장치 등등을 위해 많은 투자가 되고 있었으며 이같은 양계사의 건축비는 육계농가가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육계농가들은 대개가 현대화된 장치를 갖춘 양계사를 2동 내지는 3동을 가진다고 한다.

양계농가로 보아서는 양계사 건립에 투입된 고정투자액이 많기 때문에 양계사를 연중 쉬지 않고 이용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1년에 5회전을 해야만 채산이 맞는다고 한다.

병아리가 소정의 규격에 알맞게 자라게 되면 타이슨회사의 큰 트럭이 와서 싣고 나간다. 이때 수많은 닭의 발목을 잡아 트럭에 싣는 일은 회사에 속한 기능자가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1회전이 끝나고서 다음 병아리가 들어오는 동안 약 2주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준비기간 동안에 양계사의 청소가 중요한 일이 된다고 한다.

한동에 20,000마리의 병아리가 자라기 때문에 부화된지 며칠 안되는 햇병아리일 때의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며 병들지 않도록 사육해야만 한다. 사료와 온도 조절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큰 항목이 된다고 한다. 양계사의 바닥에는 밀짚이나 왕겨, 때로는 톱밥들을 고르게 깔아주고 있으며 바닥에 깔린 것은 1년에 한번씩 완전히 들어내어 새것으로 바꿔준다고 한다. 바닥에 깔린 밀짚과 계분은 목초지의 비료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소를 사육할 때는 겨

울철의 첨가사료로 쓰기도 한다. 톤당 25달러 정도의 값으로 팔린다고 한다.

필자는 여기에서 미국의 육계산업이 수직적으로 계열화(vertical integration)되고 있는 현장의 일부를 목격할 수 있었다. 육계산업의 수직적 계열화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 산업들이 계열화되고 있다.

1. 육계용으로 생산성이 높은 암탉과 수탉의 종계장을 운영하는 일
2. 육계용 계란을 다량 생산하는 사업
3. 육계용 계란을 부화하는 사업
4. 육계용 사료를 생산하는 사업
5. 육계용 병아리를 배당받아 규격화된 육계를 사육하는 사업
6. 규격품으로 사육된 닭을 도계하는 일
7. 제품화된 육계산품을 냉장상태로 저장하고 소비자까지 수송하는 일

육계산업의 수직적 계열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특히 육계시장이 호황일 때는 육계농가들은 계약당시에 미리 정해진 값만 받아야 하므로 호황의 혜택을 계열회사가 차지하게 되어 육계농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육계시장이 불황이 왔을 때는 육계농가들은 미리 정해진 값을 받게 됨으로써 농장의 운영이 안정되지만 계열회사의 경영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육계산업의 수직적 계열화로 닭고기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생산비가 절감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육계농가들도 사료와 병아리를 지급받아 규정대로 사양관리만 잘 하면 소득이 보장되고 육계시장의 가격경재에서 오는 위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 양계산업의 수직적 계열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 1970년대에 들어와 급속도로 일반화 되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10대 계열회사들이 미국 양계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발달하게 되었다고 한다. 타이슨회사는 10대 계열회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식품산업체로 되고 있으며 타이슨회사와 육계를 계약생산하고 있는 육계농가의 수는 10개주에 걸쳐 모두 약 6,000농가에 달한다고 하며 이들로부터 타이슨회사 구입하는 육계용 닭의 수는 주당 2,500만수나 된다고 한다 (Marvin Schwartz;Tyson, from Farm to Market, The Univ.of Arkansas Press, 1991. London).

Ⅳ. 우리의 과제

한국의 양계산업은 짧은 기간동안에 빠른 성장을 해 왔지만 아직도 선진국의 양계산업과 가격경쟁을 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한국의 양계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양계시장의 개방에 앞서 경쟁력 강화를 준비기간은 우리나라 벼농사의 그것에 비하면 월등하게 짧을 수 있다. 그것은 양계산업의 근대화를 위한 제약요인은 벼농사의 그것에 비하면 훨씬 적기 때문이다.

한국 양계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을 논의한다는 것은 필자의 영역밖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의 분야와

그 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필자의 견해를 말해 보려고 한다.

(1)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역사가 아직도 짧기 때문에 양계시장의 개방시기가 늦추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는 일이다. 몇해만 더 여유기간이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국제경쟁력이 길러질 수 있는 것을 너무 앞당겨 개방함으로써 양계산업이 근원적으로 붕괴되는 과오는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한국정부의 정책담당자가 UR 농산물 협상의 초기단계에 한국의 육계 수입금지를 1993년초부터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양계사업의 국제간의 생산성 격차의 실태를 잘 검토하지 않고서 결정한 오산이었다고 생각된다. 국제적 시야에서 본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실상이 감안된 시장개방일정이 다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한국의 양계산업을 후퇴시키면서까지 양계시장의 개방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2)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 양계산업 관련업체들이 해야 할일, 산란농가와 육계농가들이 해야 할 일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양계산업은 수입된 사료에 의존하여 발달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보다는 민간에서 할 일들이 더 많다고 본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벼농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당국에 호소해야 할 일들 보다도 양계산업 내부에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관련산업끼리 협동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3) 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재정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보다는 경쟁력을 강화를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고쳐주는 일들이라고 할 것이다.

(4)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내시장에서 양계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양계시장이 개방되지 않고 있을 때는 수입되는 사료용 옥수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농촌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양계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는 수입 옥수수에 세금을 부과하여 농촌개발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한국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된다. 특히 양계와 양돈산업에 있어서는 생산비의 대부분은 사료비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5) 근대적 양계산업의 역사가 아직도 짧은 한국이 선진된 양계산업과 가격경쟁을 함에 있어서는 양계산업에 종사하는 개개인들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게 된다. 여기에서 개별농가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양계관련업체들이 서로 조직화되고 협동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관건으로 된다.

생산규모가 작은 양계농가나 관련 산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생산과정에서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소규모업체들이 서로 계열화됨으로써 값비싼 기술이나 시설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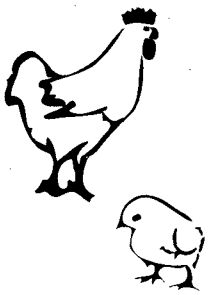
앞에서 양계산업 규모경제의 한가지 사례로써 미국의 양계산업 수직적 계열화를 들었거니와 그와 같은 계열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관련 업체들과 개개농가들의 고도의 협동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타이슨 회사의 창시자인 John Tyson은 1930년대초의 농업공황을 맞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토까지 방매하고서 낡은 트럭 한대와 무일푼의 맨몸으로 지금의 아칸소주의 양계농가들의 육계를 대도시 시장으로 수송하는 데서 시작하여 근면과 성실, 협동의 정신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양계산업의 수직적 계열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은 곧 돈이나 기술만으로는 양계산업의 계열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교훈이기도 하다.

(6) 미국의 양계산업도 처음부터 계열화된 것은 아니었다. 양계농가들은 사료업체, 병아리 공급업체, 도계업체, 운송업체들과 개별적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농간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었다. 육계시장에서는 생산품의 규격이나 품질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양계농가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양계농가들은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였고, 관련업체들도 서로가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양계산업은 안정된 발전을 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개별농가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업체들이 수직적으로 계열화(또는 통합화)됨으로써 미국의 양계산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7) 한국 양계산업의 여건은 미국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의 수직적 통합은 미국의 그것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모델이 개발되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양계인들의 지혜와 협력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과 대만에 있어서는 양계시장의 개방화 과정에서 국내 양계산업은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8) 농업은 자연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계약생산이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그 나라의 농업은 선진화된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계약생산제가 지켜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부문 중에서도 양계산업은 자연조건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약생산제가 가장 먼저 정착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농심이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9) 따라서 한국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분야를 ① 기술과 자본, ② 조직과 제도, ③ 농심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세가지 분야가 다 뒤지고 있다고 하겠지만 특히 세번째의 농심에 있어서 양계인들의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양계